

2021년 2 학기는 교환학생으로 오차노미즈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본에 입국하지 못한 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일본에 입국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지만 온라인 수업도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지낸 지난 한학기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수업에 적응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모든 수업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수업시작 시간을 외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발표를 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도 초반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학생을 위한 수업은 여러 외국에서 온 오차대 교환학생들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전공수업은 수업에서 쓰는 일본어 표현이나 내용이 조금 어려웠지만, 교수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자료들을 참고해서 수업을 들으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한 수업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업은 ‘일본어연습 3B’ 수업과 ‘소비자과학입문’ 수업입니다.



먼저, ‘일본어연습 3B’ 수업은 학생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팜플렛으로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팜플렛 디자인, 팜플렛 제작 발주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내는 수업이어서 무척 성취감이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제작한 팜플렛은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고, 그 시기를 되돌아볼 때,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팜플렛은 교수님께서 연구실에 맡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일본에 가서 팜플렛도 가지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과학입문’ 수업은 세 명의 교수님이 일본의 소비자법 및 소비자 정책에 대해 강의하시는 수업이었습니다. 세 명의 교수님으로부터 현대 소비자문제, 소비자 권리, 소비자 행정 등 전부터 관심있었던 분야를

다양한 관점으로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이외에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주최한 종이접기 교실도 교환학생 생활 중에 즐거운 체험 중 하나였습니다. 종이접기 교실은 10 월 29 일 zoom 으로 이뤄졌습니다.

종이로 하트, 호박, 토끼풍선을 접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온라인 교환학생 생활이었지만, 이런 이벤트 덕분에 수업 이외에도 일본어를 쓰면서 즐겁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을 즐길 수는 없어서

속상했지만, 이번 학기를 통해서 많은 교수님들, 교환 학생들, 일본인 학생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어서 저에게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교수이신 코타니교수님,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매달 저의 보고서를 확인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기와라 교수님, 마츠다 교수님, 교환학생 담당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교류과의 오노 선생님, 여러 교환학생 서류 절차를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수강한 수업들을 담당하신 니시자카 교수님, 요코타 교수님, 오오모리 교수님, 제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